

‘모범생’ 옷 벗은 ‘모험생’ ... “여행만큼 좋은 학교는 없죠”



정양권 사진작가 고교 졸업후 9년간 57개국 여행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에 실망 ... 도망치듯 시작 NGO 단체에서 한센인 등 도우며 ‘진짜 여행’ 떠나

“모범적인 학생이자 착한 아들로 20년을 살았는데, 수능시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삶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사람은 모두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패배자로 만드는 세상에 화가 났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떠난 여행에서 ‘진짜학교’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9년간 57개국을 여행한 사진작가 정양권(27)씨는 “여행만큼 좋은 학교는 없다”고 말했다. 자신을 ‘여행생활자’라고 소개한 정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48일동안 38개 나라를 여행하며 얻은 기억을 엮어 ‘길을 잃고 너를 만나다’(채륜서)라는 책으로 지난 4월 펴냈다.

여행에서 삶을 배웠다고 말하는 청년 정양권. 그는 지난 2005년 광주 서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으로 떠난 첫 해외 여행에서 세상이 넓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2006년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후에도 일본·홍콩·싱가폴·필리핀·태국·캐나다·몽골로 여행을 다녀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 학업 틈틈이 경비를 마련했고, 국외 봉사 프로그램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얻은 기회였다.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세계를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여전히 수능시험에 대한 후회가 남았다. 평생 아쉬움을 갖고 살기 보다는 편입을 고민하던 그에게 2008년 캐나다 여행은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됐다.

“캐나다 여행 중 만난 친구에게 1년간 대학 편입을 준비하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 친구는 1년간 편입공부를 하는 대신, 세계를 여행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배우라고 제안했어요. 견문을 넓힌 뒤에도 편입을 하고 싶다면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세계일주가 막연한 꿈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된 순간이다. 귀국 후 그는 여행사진과 향후 계획을 발표자료로 만들어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 ‘나를 돌아보며, 나를 찾는 여행’이란 목표를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해 여행경비 1700만 원을 마련했다. 여러 사람의 기대 속에 떠난 여행이었기에 그는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했다

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팔과 인도, 탄자니아까지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과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을 보며 끊임없이 기록했어요. 그러다보니 홀로 떠난 여행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죠. 오히려 친구를 만들고, 사진을 찍는 것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행 6개월째 스위스에서 터진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그런 여행을 했을 거예요.”

2009년 8월, 여행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카메라와 가방은 물론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 낯선 나라에서 옷 한 벌만 남은 상황. 사진 한 장도 남지 않은 여행을 포기할 것인지 고민에 휩싸였다. 그때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주머니 음식과 속소, 약간의 경비를 챙겨주면서 ‘이것은 실재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응원했다. 진심어린 격려를 느꼈던 그를 일으켜 세웠고, 포기했던 여행의 불씨를 살렸다.



정양권 씨가 2009년 12월 페루 마추픽추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행을 통해 뭔가를 채우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 가방에 있던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요한 것은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된 거 같아요.”

이후 한자들과 한센인들을 돕는 각종 NGO단체에서 일하며,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2012년 9월

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프랑스 유네스코 디자인 도시 ‘생테티엔’(Saint - etienne)에 있는 ‘ESAD 디자인아트 스쿨’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이후 아이슬란드 NGO단체인 ‘seeds’에서 사진교육팀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201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일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언젠가는 아프리카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진으로 알리고 싶다는 것. 그는 자신이 여행했던 총 57개국을 돌아보는 출판기념회와 사진전을 앞두고 있다. 오는 21일 광주 동구 서석로 카페 ‘말랑말랑’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그는 같은 장소에서 8월 17일까지 개인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개인 사진전 ‘길을 잃고 너를 만나다’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는지 묻자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자신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해요. 사진전을 찾는 분들과 그런 순간을 함께 찾고 싶어요.”

문의 062-222-9944. /양세열기자 hot@

장성고 학생들 광주일보서 진로체험학습



장성고등학교(교장 황의갑) 김형준 지도교사와 학생 10명은 17일 오후 광주일보 본사를 찾아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연합회(회장 장용환)는 지난 16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봉사단원 250명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연합회 제공>



지난 2월 제1회 ‘한·중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에 참여한 한·중 학생들이 한중 청소년 우호교류 활동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서 한·중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

20일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공동주관하는 ‘제2차 한·중 청소년 미디어페스티벌’이 20일 시청자미디어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한·중 청소년 40여명이 양국 문화를 배우고 미디어제작 체험과 실습을 통해 교류하게 된다. 참가학생들은 ‘광주바로알기’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두 나라 학생들은 한 팀으로 편성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한·중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은 지난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한 중국 지역 방송국 어린이기자단 232명에 이르는 등 한국미디어산업에 대한 중국 관광업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지난 2월 9일 시작한 ‘한·중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은 오는 20일 두 번째 행사가 열리며, 오는 8월 제3회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문의 062-650-0337.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은 한 팀으로 편성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한·중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은 지난해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한 중국 지역 방송국 어린이기자단 232명에 이르는 등 한국미디어산업에 대한 중국 관광업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지난 2월 9일 시작한 ‘한·중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은 오는 20일 두 번째 행사가 열리며, 오는 8월 제3회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문의 062-650-0337.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기독교간호대 ‘창의적 인재 양성’ 특성화전문대 육성사업 선정

기독교간호대학교(총장 이숙희·사진)는 ‘직무 능력이 우수한 창의적 인재 양성’사업이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전문대학에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독교간호대는 전국 단과 간호대학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를 통해 기독교간호대학교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숙희 총장은 “1999년부터 특성화사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역량을 키운 덕분에 오늘의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향후 5년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동강대, 대만 학생 초청 ‘썸머캠프’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사진) 국제교류원은 최근 일주일 동안 대만의 자매대학인 남태평양기술대학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제4회 썸머캠프’를 실시했다.

양 대학의 학술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 기간동안 남태평양대학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과 김치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등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또 동강대 학생들과 함께 시립민속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전주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동강대 학생 10명도 다음달 18일부터 30일까지 대만을 방문한다. /채희종기자 chae@



최낙원 전북대 교수 황석영 ‘객지’ 스페인어로 출간

전북대는 중남미학과 최낙원 교수가 한국 문단의 거목인 황석영 작가의 중·단편집을 모은 작품 ‘객지’를 아르헨티나 출판사에서 스페인어(贔)로 최근 번역·출간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2007년 고전소설 ‘춘향전’을 스페인어로 출간하고 2012년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사용되는 ‘카탈리어 한국어 사전’을 펴내는 등 스페인어 문화권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객지’는 1960년대 부안의 계화도 간척사업을 연상하게 하는 간척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소설의 배경인 전북을 스페인어권 독자에게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계현·김경숙씨 차남 영주군 김경순씨 장녀 박현정양=19일(토) 오전11시 30분 메종 드 보네르(구,공익공전웨딩홀) 5층 그랜드볼룸.

▲김정남·이옥순씨 장남 성호(KIA 스카우트)군 황의균·심윤남 차녀 신혜양=20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밸라지움 3층 그랜드 볼룸.

종친회

▲진주 강씨 광주·전남총회(회장 장원구) 운영위원회 회의=18일(금) 오후 6시 30분 진주 강씨 회관 3층 대회의실 062-228-3368.

알림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

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협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모집

▲광주대 풍수지리학 수강생=양택, 음택, 수맥, 명당 무료 강의(책자무료제공) 8월23(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문의 010-3609-8117.

▲팔관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원=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 (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협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 본부 회원=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강좌(수신제가치국평천하수강생=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올안(국민 누구나 수강 가능) 010-3625-5433.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 수강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광주장애인연말연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생=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4층

장애인활동보조인력 모집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약 없음 선착순 69명 접수 문의 062-416-8587.

▲무등중합사회복지관 초등학생 창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7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제 비영리경제교육기관 JAS코리아와 아산나눔재단과 ‘도전 미래 기업가’ 실시. 참가 접수는 7월 24일까지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p>	
<p>101호 故엄영숙 님(여/78세)</p> <p>子/子婦 : 윤영근/엄민숙, 윤영근/엄비숙 女 : 윤미자 孫 : 윤인철, 윤인호, 윤인수 •발 인 : 7월 19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p>	<p>102호 故안현호 님(남/49세)</p> <p>子 : 안성환, 안성민 女 : 안미영 未亡人 : 박희영 •발 인 : 7월 19일 •장 지 : 화산남면 선영 •연락처 : 227-4386</p>
<p>201호 故박화순 님(여/75세)</p> <p>子/子婦 : 김경진, 김성일/한재은 女/婿 : 김옥희/이정근, 김은영/정진우</p> <p>•발 인 : 7월 19일 •장 지 : 나주도도면 선영 •연락처 : 227-4381</p>	<p>402호 故김용선 님(남/76세)</p> <p>子/子婦 : 김경남/김영숙, 김명근 女/婿 : 김희옥/박준숙, 김미숙/송연복, 김춘화/이정훈, 김경희/김기수</p> <p>•발 인 : 7월 18일 •장 지 : 순천시립추모공원 •연락처 : 227-4314</p>
<p>孝 금호장례식장</p> <p>마음까지 편안한 http://www.mykumho.com</p> <p>문 의 (062)227-4000</p>	